

# ‘세계사의 절반’ 유목문명은 어떻게 사라졌나

## 인문학자 공원국의 유목문명 기행

공원국 지음

인류가 처음으로 삼림에서 나와 초원을 밟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대략 3500년경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제국주의가 횡행하던 19세기까지는 대체로 유목 문명이 인류의 역사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정주문명과 충돌, 융화가 있었으며 두 문명은 서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었다.



초원에서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은 자유를 상징한다.

〈위즈덤하우스 제공〉

키타이는 정복해도 지배하지 않았다. 페르시아와 충돌할 상황에 이르자 그들은 “우리는 잃을 도시도 곡식을 심을 땅도 없다”고 경고했다.

유목문명과 정주문명이 충돌한 것은 아니다. 융화는 물론 서로 다른 방법을 모색하거나 길을 제시했다. 저자는 위구르와 당나라의 관계에서 그 예를 제시한다. 기원 전 200년 전부터 한무제 등장 전까지 70여 년간 흉노와 한나라는 충돌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립과 타협으로 위기를 서로 관리했다.

유목문명 안에서 폭력을 반성하고 창조를 모색하는 도덕률이 탄생한 점은 흥미롭다. 고대인의 설화를 보면 전쟁의 신으로 추앙받던 인드라는 악신으로 폄하되며 이와 달리 창조신의 신이 등장한다.

저자는 유목문명의 제일 척도인 자유의 가치를 주목하며 이때의 자유는 이등뿐 아니라 생각까지 포괄한다. 그러나 모든 유목민이 자유의 가치를 수호한 것은 아니

다. 유목집단이 국가로, 제국으로 변모해가면서 등장하는 세력이 바로 칭기즈칸이다. 칭기즈칸은 기존의 씨족, 부족 체제와 완전히 다른 호(戶) 단위로 몽골제국을 조직하고 늘 이 같은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병영국가’ 탄생을 견인한다.

칭기즈칸이 죽고 티무르라는 자가 위세를 떨쳤지만 그것도 잠시뿐 유목문명은 존재감을 잃고 만다. 이후 등장한 카자흐는 부족장들과 부족민 의사를 존중했으며 지역 평화 유지를 위해 애썼다. 러시아와 외교관계를, 모굴리스탄과 우호 관계를 맺었는데, 여기에는 유목문명 특유의 공유와 환대의 가치가 놓여 있다.

저자는 유목민은 모두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뽀뽀 뽀뽀는 ‘사냥꾼의 윤리’를 견지했다며 그것이 바로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나름의 비법이었다고 설명한다.

〈위즈덤하우스·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나는 내가 먼저입니다=개인의 삶과 무너진 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해 가장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바운더리 연습’을 돕는다. 미국 심리치료사인 네드라 글로버 타와브는 14년간의 상담 사례와 인지행동 치료를 바탕으로 나와 타인 사이의 적절한 경계선, 즉 ‘바운더리’를 설정하면 관계에 따른 스트레스부터 불안, 우울, 분노 등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한다. 〈매일경제신문사·1만6800원〉



▲게임하는 뇌=게임을 하는 동안 우리의 뇌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게임 과학연구원장인 이경민 서울대 의대 교수는 게임은 평소에 쓰지 않던 신경 세포의 연결을 재미있는 방식으로 활성화해 준다고 말한다. 책은 게임의 긍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춰 인지과학, 심리학, 의학, 게임 공학 등의 연구를 통한 게임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공소북·1만6800원〉



을 살아간다.〈책읽는 고양이·1만2000원〉

▲부동산은 어떻게 여성의 일이 되었나=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인 저자 최시현이 한국 중산층 여성들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게 된 내력을 파헤친다. 1980년대 초반 집값 폭등 속에서 ‘집사람’으로 치부됐던 여성들은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다. 책은 1950년~80년대 사이에 출생한 중산층 여성 25인의 다채로운 주거생활사를 추적한다. 〈창비·2만원〉

## 어린이·청소년 책



▲두근두근 목욕=이탈리아 동화 작가 리사 비기가 목욕이라는 일상의 과정을 상상력 가득한 이야기와 정량한 색깔로 그려 낸 책이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목욕하는 동안 주고받는 귀여운 대화 속에서 욕실은 상상만 하면 무엇이든 이루어지는 마법 같은 공간으로 변한다. 아이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욕실이 그 어떤 곳보다 더 흥미진진한 모험의 장소가 된다. 〈창비교육·1만3000원〉

▲아름 방학=지난해 불로냐국제아동 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된 그림책 작가 윤강미의 두 번째 창작 그림책. 달이 사라진 그림밤에 가족과 숲으로 간 어느 가족의 이야기다. 태블릿PC, 게임기, 휴대전화 등을 들여다보던 가족 구성원들은 어느새 숲길의 풍경과 밤공기에 빠져든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주제 의식을 서정적으로 그려 낸다. 〈시계절·1만6000원〉

▲작은 새 노랑이=달빛 산책의 그림 작가인 블랑가 고메즈가 처음으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린 작품이다. 작가의 어린 시절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한 그림책이다. 추운 겨울, 눈 오는 날 아이와 할머니는 상처 입은 작은 새 노랑이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돌봐준다. 노랑이와 함께 살면 안되는 아이의 질문에 답하는 할머니에게서 동물과 자연에 대한 지혜가 전해진다. 〈다산기획·1만5000원〉

# 시대를 빛낸 전설...아티스트 33인의 삶과 예술세계

## 예술가의 일

조성준 지음



“당신이 편안하다고 느낀다면 그건 당신이 죽었다는 뜻이다.” 가수 겸 영화배우인 데이비드 보위의 말이다. 그의 말은 고전적인 예술가의 모습을 보여준다. 예술만을 위한 삶을 살다가 그들의 삶은 모진 고통과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것이다. 예술에 대한 열망,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는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르다.

화폭 앞에서, 무대 위에서, 거리를 누비며 자신의 세계를 꿈꿨던 예술가의 삶을 다룬 책 ‘예술가의 일’은 한 시대를 빛냈던 전설들에 대한 이야기다. 저자인 조성준은 일간지 기자로 현재 매경프리미엄에 ‘죽은 예술가의 사회’를 연재하고 있다. 저자가 책을 쓰게 된 것은 필립 로스의 책 ‘아버지의 유산’을 읽던 중 그의 부고 소식을 접하면서였다. 병든 아버지를 관찰, 기록에 골몰했던 아

들도 결국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접하고 한 인간이, 한 세계가 소멸한다는 의미를 생각하게 됐다.

책에는 ‘화성에서 온 톱스타’ 데이비드 보위를 비롯해 ‘사막에서 다시 태어난 화가’ 조지아 오키프, ‘다른 세상을 꿈꾸게 하는 목소리’ 어리사 프랭클린, ‘바람과 함께 사라진 청춘’ 장국영, ‘20세기 예술의 수호자’ 페기 구겐하임, ‘영혼을 위로하는 만화’ 다니구치 지로 등 33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아울러 구스타프 말러, 마르크 샤갈 등도 그들 이름이 곧 예술 자체일 만큼 자신들의 분야에서 큰 성취를 일군 아티스트들이다.

인류사에 위대한 유산을 남긴 예술가들 가운데는 당대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이들이 적지 않다. 괴짜, 이단아, 이방인, 미치광이와 같은 소리를 수시로 들었다. 안토니 가우디는 미치광이라 불렸으면서도 건축학교를 찢기로 졸업했다. 발레 공연을 하다가 외설죄로 체포됐던 무용수 바츨라프 니진스키도 특별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안토니 가우디는 성스러운 건축물로 바르셀로나를 세계적인 도시로 세웠으며 바츨라프 니진스키는

발레를 현대예술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데 일조했다.

국내 예술가 가운데서는 영화를 찍으며 세상과 싸웠던 박남욱 감독, ‘잊혀지지 않을 슬픈 전설’ 천경자 화백의 삶과 예술도 조명했다. 첫 여성 감독으로 ‘미망인’이라는 영화를 만든 박남욱은 “투표한 신기록 보유, 단거리 육상선수, 신문사 기자”라는 독특한 이력을 지녔다.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예술세계를 펼쳤던 천경자는 자신의 고통을 주제로 삼은 면에서 프리다 칼로 자화상과 비교된다.

이밖에 책에는 ‘고독 뒤에 가려진 고독’ 에드워드 호퍼, ‘어둠을 수집한 보모’ 비비안 마이어 등의 이야기가 나온다. 33인의 예술가의 삶은 역동적이고 열정적이다. 저자는 이들의 삶과 예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예술가들 역시 제각각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할 한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고독하게 일했고, 누군가는 시골 벽적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술가의 결과물은 결국 인류의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유산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작가정신·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